

화심이

명철이가 서류 일 건을 가지고 미리부터 저당 수속을 하고 있던 은행에 나간 후 화심이는 하이얀 레-스 잇을 시춘 원앙새 무늬의 궁수 벼개에 가 붙한 누비 천의를 덮고 도로 누어버렸다.

호박색으로 짜르르 길이 든 방에는 자개장이 짝 들어 놓였고, 경대 앞에는 잘 때 떼어 놓 금강석과 루비를 박은 값진 팔지가 얹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사치스러운 미술품들이 놓였고 문갑 위에는 고려청자에 백모란이 한 떨기, 어항에서 금붕어가 세 마리 꼬리를 하르랑거리며 놀고 있다.

자개 틀에 박힌 두꺼운 채경이 한 쌍 걸린 아래에 놓인 조각한 화류¹¹³⁾ 화대¹¹⁴⁾ 위의 화사한 향노에서는 그윽한 향내가 은은히 퍼지고 있다. 향수를 쓰지 않고 향갑을 차고 손을 맞을 때는 향노에 향을 피우는 것이 화심이의 취미였다.

머리맡에는 지난밤의 비밀을 엿보이듯 물이 반쯤 남은 자리끼 그릇이랑 담배꽂초가 쌓인 재떨이랑 양즙 대접, 과일 접시, 휴지 같은 것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화심이 자신은 남 생고사 치마를 스르르 두르고 파란 비추 단추를 물린 하이얀 옥양목 적삼을 입고 머리 위에 얹은 뽀얀 손에는 커다란 금강석 반지를 끼고 있었다.

113) 붉은빛을 띠며, 결이 곱고 몹시 단단하여 건축·가구·미술품 따위의 고급 재료로 많이 씀.

114) 화분 따위를 올려놓는 받침.

그의 머리는 흐터지고 눈가는 푸르스름하고 헬썩한 얼굴은 앓고 난 것처럼 누르스름했다.

이 사치스러운 주위와 어지럽게 널려진 방안과 나릿한 주인의 모습은 모두가 그의 신분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었다.

장안 화류계에서 첫 손꼬락 꼽히는 염화심이- 파주 지주로 일제시대부터 다액 납세자의 한 사람인 김동운에게 사깃을 씨우고 전주 갑부 남충식, 개성직물공사 사장 백현섭이 모모 무역업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그의 일반 일소에 일희일우를 하게끔 하던 그 염화심이가 요즘 바람이 났다.

정월 보름날이었다.

10시 가까워 문란해진 주석에 외잡한 농이 던져지고 주육에 광란한 사나이의 추태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벌어지는데, 말석에 자리잡은 삼십 전후의 청년이 몹시 어색한 듯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계만 보고 있는 것이 화심이의 눈을 끌었다.

넙적스름한 얼굴에 우뚝한 콧대, 특 불그러진 눈 두껍고 큰 입-한마디로 말하면 몹시 썩스럽고 생채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 썩스럽고 데면데면한 것이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이채를 띄우는 것이다.

청년의 이름은 정명철, ××무역회사 경리과 차장이라고 들었다.

풍채로나 지위로나 보잘것없는 그에게 그날 밤 지나치게 호의를 보인 화심이는 그에게 마음이 끌렸다기보다 너무나 치근치근하게 구는 사장과 그가 초대할 요로의 사람들의 거만한 태도에 대한 반감에서였다. 또 어언간 습성이 되어 버린 직업적 잔인성으로 그 수집은 청년을 희롱하는 데 만족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정명철이가 자기에게 도모지 자신을 가지지 못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설 때 이미 화심이의 머리에서는 정명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근 보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이다. 곱게 단장을 한 그가 어느

자리에 불러가는 자동차에서 텅 비인 머리로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문득 보도를 이쪽으로 걸어오는 남녀가 눈에 띈다. 남자는 외투와 방한모로 단단히 싸 어린아이를 안고 아내는 기저귀 가방을 들고 서로 무엇이라고 정답게 속삭거리며 걸어오는 것이었다.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이다. 순간 화심이의 얼굴에는 험한 표정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창녀들이 단란한 가정을 볼 때 느끼는, 자기에게는 영원히 닫힌 락원을 엿본 것 같은 선망보다도 저주에 가까운 거센 감정에 휩쓸렸던 것이다.

그들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왔다. 검은 쏘호트를 쓴 덩그렇게 키가 큰 그 남자를 보자 화심이는 어데선지 본 듯한 그의 얼굴을 자기가 접촉한 수다한 남자들의 기억 속에서 더듬어 보았다.

자동차가 그들 옆을 지날 때 남편은 고개를 개웃하며 자기를 쳐다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순간 화심이는 보름날 밤의 그 쭉스러운 정명철이를 보았다. 화심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또 명철의 아내를 한눈으로 훑어보고 그가 뛰어난 미모의 여성인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화심이의 시기심과 적개심을 자극한 것은 아름다운 그의 얼굴과 날신한 몸 전체가 사랑과 행복과 현숙으로 그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천사와 같이 순화되어 있는 점이었다.

화심이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운전수에게,
“잠간만 세워 주.”

하고 차를 머물게 하였다. 이윽고 아름다운 얼굴에 요염한 미소를 띠우며 독침을 잔뜩 안고 그들 부부 옆으로 다가갔다.

“명철 씨! 명철 씨!”
애운성 있게 부르는 젊은 여자의 음성에 그들은 일시에 놀라서 뒤를 돌아본다.

“아이, 저예요 화심이에요요 그날 밤엔 참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쳤어요

언제 또 오시죠? 오늘? 낼?”

화심이는 약간 꼬운 몸에 탯거리를 먹음고

“그럼 꼭 기달리고 있겠어요 네?”

하고 방그레 웃으며 허리를 굽히고 아연해서 서 있는 그들을 남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그의 눈은 잔인한 쾌감으로 이글이글 불탔다. 그는 그 어여쁜 아내의 평화스러운 가슴에 독침을 준 것을 확신한 것이다.

그런 종류의 독침이란 맞은 당시엔 그저 따끔한 바늘 끝에 지나지 않으나 시(時)가 갈수록 그 상처가 점점 커져서 드디어는 무서운 독종이 되어 수술이 필요하게끔 되는 법이다.

물론 화심이도 악마가 아닌 이상 끔찍한 흥심을 품도록 명철의 아내를 증오하고 적대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남편의 사랑과 자신의 현숙으로서 그토록 평화스럽고 행복한 여인네에 비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하고 추잡하고 죄악에 찬 경우가 몹시 억울한 것 같았던 것이다. 자기도 오빠가 폐병으로 죽지만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중풍으로 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가냘픈 자기에게 매여 달린 어린 동생들만 없었더라면 남에게 경애를 받는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었지 않았던가?

기생이요 요부요, 허나 그것이 과연 자기만의 죄로 돌려보낼 것인가? 여러 모로 짓밟힌 자의 음울한 복수심이 남의 행복을 괴란해 보고 싶은 뜨거운 유혹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서빨리 남의 질시를 받을 만한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죄 없는 명철의 아내는 까닭 없는 안가품을 받게 되어 큰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염화심이는 여지껏 노린 미끼를 놓친 적이 없었다.

정명철이가 아무리 그 아내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세정에 어둡고 또 용모에나 수완에나 자신을 가진 일이 없느니만큼 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화심이 자신도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다. 다름이 아니라 여지껏 사랑을 몰랐던 그가 정명철의 박눌(朴訥)하고¹¹⁵⁾ 진실한 성격에 반해 버린 것이다.

지위도 재산도 없는 무명의 일 청년에게 정신을 잃는다는 것—이것은 기생으로서 확실히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무들의 조소도 손들의 성화도 욕심 많은 어머니의 짜증도 개의치 않고 고집이라 할 수밖에 없는 명철이에 대한 정열을 버리지 못했다.

명철이가 오지 않는 날에는 그의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이 눈앞에 선—히 떠올라 질투가 가슴을 찢었다.

화심이는 남자가 벗어 놓고 간 자리옷을 끌어당겨 그리운 그의 체취에 취한 듯 눈을 감았다.

“뎡, 뎡, 뎡.”

시계가 11시를 쳤다. 그때 밖에서,

“아씨, 손님이 오셨어요” 하는 식모의 소리가 들렸다.

“뭘, 손님?”

“네. 침 보는 안손님예요.”

“어디서 오셨답디까?”

“돈암동서 오셨다나요.”

화심이는 무슨 예감이나 받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장지문을 바시시 열고 음성을 죽이며,

“아주 예뻐장스러운 염집 부인넵디까?”

“네. 아주 곱다란 젊은이예요.”

이력이 찬 식모는 자기도 목소리를 숙 낮춘다. 화심이의 얼굴은 확 달았다.

115) 됴뻬이가 수수하고 말이 없음.

“없다구 그리지-.”

“아이 어떻거나……. 전 또 그럼 지금이라두 핑겔 맨들어 보낼까요?”

화심이는 입술을 꼭 깨물고 한참 말이 없다. 이윽고 그는 결심한 듯이 얼굴을 들고

“거년방에 모셔 드리우.”

하고 부리냥게 경대 앞으로 가서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익숙한 솜씨로 삼시간에 거울 안에는 화려한 한 떨기 꽃이 만족한 듯이 방긋이 웃었다.

그는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장문을 열고 자주 수년 치마에 미색 수 저고리를 꺼내 입고 하이얀 진술 보선을 신고 경대 앞에 가서 맵시를 보고 저음이 자기 자신에 만족을 느꼈다. 이제는 가슴도 가라앉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는 새침한 표정을 짓고 거년방으로 건너갔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손은 문 열리는 소리를 듣자 송곳으로 찢리거나 한 것처럼 몸을 움쭉 하고 얼굴을 들었다. 짐작한 바와 같이 언젠가 본 그 정명철의 아내였다. 그는 한참을 절망과 공포에 오뎅 서 있는 요염한 화심이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하였다.

그들은 마치 먼저 입을 여는 것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나 한 것처럼 한참은 쌍방이 다 잠잠히 말이 없었다.

하얗게 소복을 한 명철의 아내의 우수를 머금은 얼굴은 창백하고 전에 볼 때보다 약간 야윈 것이 처연하였다.

그러나 명철의 아내의 시야에서는 화심이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고 눈앞에서 오색의 무수한 동그래미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현기를 참으려고 눈을 감았다.

화심이는 잔혹한 눈초리로 그의 분식 없는 창백한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가 있는 힘을 모아 도로 눈을 떴을 때 억양 없는 냉담한 어조로 비로서 입을 열었다.

“내가 주인인데 무슨 일루 오셨는지?”

“난 정명철의 아내예요”

하고 손은 한마디 한마디를 애써 발음하였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네?”

화심이는 이내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손은 그 태도에 질린 듯이 또 말문이 막혔다.

절망과 분노와 굴욕의 눈물을 참는 애석한 노력을 화심이는 그의 떨리는 가냘픈 어깨와 꼭 각지를 낀 손에 준 힘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여인의 고민과 절망을 보라! 화심이가 최초로 목적인 바는 이로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명철에 대한 사랑은 장난이 아니다. 그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고쳐 잡았다.

숨이 막힌 듯한 침묵이 흘렀다. 드디어 명철의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종이쪽같이 창백한 얼굴에 긴 속눈썹을 가진 눈이 푸른 광채를 내고 있다. 그는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낸 것이다.

“주인은 어딜 갔어요?”

그는 차분한 태도로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주인이라뇨? 누구 말씀이지요?”

화심이가 시치미를 딱 떼려 하는 것을 명철의 아내는 덮어 놓고 재차 물었다.

“어디 간지 모르세요?”

“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고 얼버무리는 화심이를 명철의 아내는 똑바로 쏘아보다가 아무런 의혹도 추궁도 용서치 않는 단호한 어조로,

“당신두 여자라면 또 진실루 그이를 사랑한다면 같이 서둘러 주세요요”

“.....?”

“그저께 저녁에 시골서 전보가 왔어요 시어머님께서 뇌일혈루 쓰러지셨

다구. 그런데 서울엔 친척두 없구 친한 사람두 없구, 덕이 어딘지두 모르구. 회사에두 요즘은 통 안 나온대구.”

그는 잠간 말을 끊었다가,

“주인은 독자예요 여지껏 효자로 소문이 났지요 나는 미친 듯이 그이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시간은 자꾸 가서 오늘이 벌써 사흘째— 어저께 밤에 또 위독하시다구 전보가 왔어요”

“나를 것처럼 사랑하시던 어머니의 종신두 못 허나 허구 나는 몸을 태웠어요 혼자 떠날까 했지만 그러면 여태껏 건실한 효자로 내려오던 주인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어요 또 어른께서는 얼마나 핏뚱해 하시구 근심들 하시겠어요?”

“.....”

“물론 어른께서는 나 혼자만이라두 안 내려온다구 하시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이의 아내예요 걱정을 듣더라두 그이를 찾아서 동행허구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같이 왔다구 여쭙겠어요”

“.....”

“아아, 당신은 얼마나 무서운 독을 내게 뿜으셨는지—.”

명철의 아내는 한숨을 쉬고

“내가 혼자 내려가서 아버지께 여사여사한 사정으루 사랑에서는 못 왔습니다구 여쭙면, 그 완고하신 어른이 노발대발 야단이 나서서 나 혼자 힘으로는 너무나 참혹하게 겨운 문제인 당신과의 관계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지두 모르지요”

“.....”

“그렇지만 지금은 나만 정성 없는 자부가 되어 어쨌던 그이와 늦게라두 동행해서 간다면, 출장은 공무니 할 수 없다구 덮어주셔서 어른의 마음두 편하시구 주인두 면목이 설 게 아 니예요?”

“.....”

화심이의 고개는 점점 수그러졌다.

“네, 당신두 여자지요 또 남의 자손이지요? 그이를 위하여 좀 서둘러 주세요”

“네.”

한마디도 말이 없던 화심이는 비로소 입을 열어 가만한 목소리로 나직이 대답하였다. 이윽고 그는 소리를 쳐서 계집애를 불러 무어라고 분부를 내린 후 겸허한 미소를 띠우며,

“부인……. 안심하시구 가서서 행장을 차리세요 곧 사랑양반이 댁으로 돌아가실 테니. 그리구- 그리구 다시는 이 집에 오시질 않으실 테니.”

“네?”

“부인!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결단코 사랑 양반께 오늘 부인이 저의 집에 오신 것을 말씀 마십시오. 그리구-”

그는 말을 끊고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가는 목소리로,

“그리구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상대방의 뺨을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의 전신을 커다란 감동이 휩쓸었다. 그의 눈에는 그 청소한 부인의 순결한 감격의 눈물이 마치 자기에 대한 신(神)의 사면(赦免)과 같이 승고하고 황송하였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남쪽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 명철이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히고 눈은 킁킁하고 입은 비통하게 다물어진 채 말이 없고 아내는 간간히 가늘게 한숨을 지으며 남편의 눈치를 살작 살피곤 하였다. 기다리다 못해서 시골서 데리러 올라온 사람은 부모상이라 망극해 하는 것은 무리없는 일이라고 자기도 언짢아했다. ……

같은 시간에 염화심이는 모처럼 만에 나간 주석에서 정신을 잃도록 술이 취해 귀여운 주정까지 부려 그것을 자기에 대한 아양이라고 해석한 무역업자 장병목이의 간장을 녹였다.

—《부인경향》 1권6호, 1950. 6.